

# 삼성전자 주가 4.5% ↑… 맥 못 추던 반도체株 반등 ‘기대’

〈올 들어 최대폭〉

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약세 흐름  
올해 연말 반등… 긍정적 전망  
업체 3분기 실적 부진 예상도

반도체 업황 악화, 외국인 매도세 등  
으로 힘을 쓰지 못했던 반도체주가 13  
일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오랜만에 시  
장을 주도했다. 3분기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 하락세가 조기에 끝나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올  
연말에는 반도체주가 반등수순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을 내  
놓고 있다.

올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바닥을  
경신해왔던 업종 대표주 삼성전자와 S  
K하이닉스 주가는 13일 큰폭으로 상승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올 들어 최대 상  
승폭인 4.50% 뛴 5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도 4.87% 오른 9만  
4800원에 마감했다.

반도체 관련 주식은 올 들어 약세흐  
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글로벌 경  
기침체 우려, 반도체 수요 감소, 미국의



반도체 이미지.

/유토이미지

대중국 봉쇄 등으로 업황 위축을 우려  
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투매하기 바  
빴다. 올해 외국인 순매도 상위 1위 종  
목은 삼성전자로, 지금까지 9조원 이상  
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장중 한때 5만5600원을 기록하  
며 52주 신저기를 경신하기도 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25% 하락되  
으며, SK하이닉스는 27%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반도체 시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  
이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가격은 (D램 고정  
가) 1분기 3.41달러, 2분기 3.37달러로  
지속해서 하락했으며, 3분기 2.88달러,  
4분기 2.50달러로 추가 하락이 전망되  
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의 반

도체 수요 감소 등 전방산업 수요가 줄  
어 반도체 출하량 또한 감소했다. 통계  
청에 따르면 7월 반도체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7%, 전월 대비 26.1% 줄  
었다.

출하량 감소와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  
서 3분기 반도체 업체의 실적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  
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는 13조4961억원으로 전년 동기(15조  
8175억원) 대비 14.68% 줄어든 수치  
다. SK하이닉스는 전년 동기(4조1718  
억원) 대비 28.41% 감소한 2조9865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유진테크  
(-50.8%), 원익(-26.8%), SFA반도체  
(-22.3%) 등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하향  
됐다.

다만 증권사들은 반도체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삼성전자와 SK하  
이닉스의 주가는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  
다면 반도체 가격이 내년 중반쯤이면  
다시 오를 것이란 전망 아래 관련 업종  
주가는 올 연말부터 다시 반등할 것으  
로 내다보고 있다.

최도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  
해 3분기 메모리 업황이 부진하다. 가격  
과 판매량이 모두 시장 예상을 하회하  
며 3분기 및 4분기 재고 증가가 가파를  
것”이라며 “주가는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1분기 내외에서 반등할 것으로 전  
망하며, 업황(메모리 가격)은 2023년 중  
반에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보  
수적인 전방업체들의 구매 강도와 상승  
추세인 메모리 업체들의 재고 수준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 업황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하반기부터는  
클라우드에 기반한 데이터센터 수요  
가 회복되며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한다”며 “현 반도체 업종 주가는 이미  
내년 상반기까지 악화할 업황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부담이 없다”고 밝  
혔다. 이어 그는 삼성전자에 대해 “전방  
수요둔화로 내년 역성장이 불가피하지  
만, 이미 주가는 이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오히려 메모리 다  
운사이클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부  
각될 것”이라고 긍정 전망을 내놓았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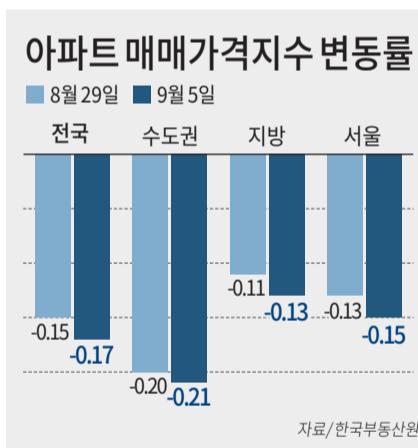
## 브레이크 없는 서울아파트값… 15주 연속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0.15% 하락  
금리 인상기 이자 부담 증가 영향

서울 아파트값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추가 하락 우려 등으  
로 1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9월 5일 기준)’에 따르면 서  
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15% 하락했다. 하락폭은 전주(-0.  
13%) 보다 0.02%포인트 확대됐다.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하락(-0.01%) 한  
뒤 15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강북권에서는 노원구(-0.25%→-  
0.30%)는 중계·상계·월계동, 도봉구(-  
0.27%→-0.30%)는 쌍문·병학·창동구  
죽, 서대문구(-0.23%→-0.25%)는 남



가좌·북가좌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  
이 커졌다. 지역개발 기대감이 있던 용  
산구(-0.04%→-0.05%)의 경우에도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남권에서는 송  
파구(-0.12%→-0.16%)가 잠실동 대

단지와 오금·문정동 위주로 하락했다.  
지난달 15일 하락 전환한 서초구(-0.  
02%→-0.03%)도 하락폭이 확대됐다.

이밖에 영등포구(-0.10%→-0.  
13%)는 문래·양평동 중저가, 관악구  
(-0.08%→-0.14%)는 봉천·신림동, 금  
천구(-0.11%→-0.16%)는 독산·시흥  
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및 집값의 추가 하락 우  
려 등으로 거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와 매물 가  
격 하향 조정 지속이 하락폭 확대의 원  
인으로 보고 있다.

/김대환 기자 kdh@

## 서학개미, ‘3배 레버리지 ETF’ 집중 순매수

### 해외주식 Click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절반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초고위험 상품인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순매수했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정  
점 통과) 기대감이 선반영하면서 미국  
증시의 단기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  
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9월 5~11일)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절반이 5개 종목이 3배  
레버리지 ETF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익  
률 3배를 주종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  
우 3배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이다.

순매수 1, 2위 종목은 ‘속슬’과 ‘티  
큐’다. ‘속슬’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

체 지수의 수익률 3배를 추종하는 디렉  
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불 3X ETF(S  
OXL·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 ‘티큐’는 나스닥 100 지수의 3배를 추종  
하는 프로셰어즈 올트라프로 QQQ ET  
F(TQQQ·PROSHARES ULTRAPR O QQQ ETF)다. 각각 7639만달러, 6760만달러가 유입됐다.

미국 채권 ETF에 대한 자금 유입도  
이어졌다. 뱅가드 인터미디에이트 텁 코퍼레이  
트 본드 ETF(VCIT·VANGUARD I  
NTERMEDIATE TERM CORPORATE BOND ETF)는 순매수 5위를 차  
지했다. 981만달러의 순매수가 유입됐  
는데, 미국의 중간등급 회사채를 담은  
ETF로 2.55%의 월 배당 수익률을 기  
록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 더블유시피 등 출격 준비… 줄잇는 IPO

IPO 시장 분위기 반전 ‘관심’

금리 인상기 속 IPO 시장마저도 한파  
가 불어닥친 가운데 이달에도 기업공개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이어지고 있  
다. 1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기록할 것으  
로 예상되는 더블유시피(WCP) 등이 차  
례대로 나서면서 침체된 IPO 시장의 분  
위기를 반전시킬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까지 코스피·코스닥에서 더블유시피,  
KB스타리츠,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등  
을 비롯한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  
AC) 등 12개 기업에서 일반 공모 청약  
을 진행한다.

가장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은 더블유시피다. 하반기 중 IPO 시장

최대어 중 하나로 지목되는 더블유시피  
는 국내 2차전지 분리막 2위 업체로 KB  
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대표 주관 아래  
에 오는 14~15일 수요예측에 돌입한  
다. 이어 20~21일에 일반 청약을 진행  
하며, 희망 공모가 밴드 기준 시가총액  
이 2조7208억~3조4009억원에 달한다.

KB스타리츠는 오는 15일부터 16일  
까지 일반 청약을 진행한 뒤, 다음달 6  
일에 코스피에 입성한다. 벨기에, 영국  
등 해외에 위치한 빌딩을 기초자산으로  
한 재간접 투자 방식의 리츠다. 예상 배  
당수익률 7.76%(지난달 말 기준 추정  
치) 수준으로 예상되며, 낮은 공실률을  
유지해 안정적인 임대료 수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영석 기자 ysl@

LH

## 전세형 주택 1821가구 청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4일  
부터 전세형 주택 1821가구에 대한 입  
주자를 모집한다.

전세형 주택은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형으로  
보증금 전환범위를 확대해 공급하는 주  
택을 말한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  
주할 수 있다.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  
료는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으  
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  
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  
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821가구다.

/김대환 기자

## 기업 경영진 “내년 하반기 후 경영환경 회복”

신한금투, 하반기 경제전망 조사

하반기 경영환경이 부정적이나 지금  
과 유사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 경영진들은 경영환경 회  
복 시기를 2023년 하반기 이후로 놓았  
다.

13일 신한금융투자는 신한카넥트포  
럼 200명 및 신한디지털포럼 법인 회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  
다. 신한금융투자 신한카넥트포럼은 연  
매출 또는 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이며, 신한디지털 포럼은 국내  
법인 경영진으로 구성된 언택트 프로그

램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표기업  
경영진들은 2022년 하반기 코스피 지수  
를 2300~2500선으로 보는 응답자가  
45%, 2500~2700선으로 보는 응답자가  
24%로 하반기 경영환경이 부정적이거나  
지금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영환경이 회복되는 시기를 2023년 하  
반기 이후라고 보는 응답자가 81%를  
차지했다.

특히 기업 경영진들은 인플레이션 장  
기화와 금리상승 지속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자산가치  
하락, 우수인력 확보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경 기자